

연수 국가: UAE(두바이, 아부다비)

연수 기간: '24. 1. 5. ~ 1. 10.

— 2024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24년도 1월



**단 양 군 의 회**

# 목 차

<b>I. 연수 개요</b> .....	<b>1</b>
<b>II. 연수국가 소개</b> .....	<b>2</b>
<b>III. 일정별 주요 연수 내용</b> .....	<b>4</b>
<input type="checkbox"/> 2024. 1. 5.(금) .....	4
<input type="checkbox"/> 2024. 1. 6.(토) .....	4
<input type="checkbox"/> 2024. 1. 7.(일) .....	10
<input type="checkbox"/> 2024. 1. 8.(월) .....	11
<input type="checkbox"/> 2024. 1. 9.(화) .....	13
<b>IV. 두바이에 들은 이야기가 방송에서</b> .....	<b>18</b>
<b>V. 국외연수를 마치며...</b> .....	<b>19</b>

# — 2024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 금번 국외연수가 특히, 관광성 외유라는 불신과 오해가 없도록 의원으로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부단히 고민하면서,
- 단양의 발전적 미래를 상상해 보고, 그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4박 6일간의 연수 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체험하고 느낀 점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음.
- 그러나, 표현의 부족함을 인해 다소 세련되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함.

### I 연수 개요

- 기 간: 2024. 1. 5.(금) ~ 1. 10.(수)/ [4박6일]
- 장 소: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부다비)
- 연수목적
  - 국외 선진 지역의 관광개발과 도시재생, 스마트 구축 사례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우리군에 접목가능한 방안을 모색
  -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
- 주 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보고서 작성: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장
- 연수 대상자

소 속	직	성 명	비 고
단양군의회	의 장	조 성 룡	
	행정7급	조 민 기	

## II 연수국가 소개

###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현황

- 국 명: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AE)
- 연합국 창립일: 1971. 12. 02
- 수 도: 아부다비
- 인 구: 928만 명(순수 UAE 국민은 100만명)
- 면 적: 83,600km<sup>2</sup>(한반도 면적의 약 37%, 전 국토의 97%가 사막)
- 화폐단위: 다르함(AED), 1 USD = 3.67 AED
- 종 족: 아랍인, 외국인(주로 아시아계, 이란계)
- 공 용 어: 아랍어/ 영어, 이란어, 힌디어, 우르드어 등 통용
- 종 교: 이슬람교(96%). 기독교, 힌두교 (4%)
- 기 후: 기후 고온 다습한 사막 기후
- 시 차: 한국보다 5시간 느림
- GDP: 5894억\$ (2022년 EIU)
- 원유 매장량: 978억 배럴(세계 8위, 점유율 5.8%)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의 연방제: 국가원수, 부통령 겸 총리
  - 7개 에미리트 구성: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알콰인, 후자이라, 아스알카이마
  - 대의기구: 연방평의회(40명, 4년 임기), 의회 기능과 유사하나 실질적인 입법 권한은 없고 자문 기능만 담당
- 경 제
  -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에 있었던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고 인상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 세계에서 7번째로 거대한 석유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동에서 진보적인 정책들과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지난 40년 만에 실질적인 GDP가 3배 넘게 증가할 수 있었다. 현재의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이며, 1인당 GDP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GDP보다 80%가량 더 높을 정도로 매우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 한국과의 관계

- 1980년 6월 18일 대한민국과 수교하였다, 1980년 12월에 대사관을 개설하였고, 2008년 3월에 두바이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1987년 3월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아랍에미리트 교역규모는 수출 40억 달러, 수입 73억 달러이며 대한민국 기업은 170여 개 사가 진출하였다.
-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재외 동포는 약 9,642명이다.

□ 두바이 및 아부다비 현황

구분	두바이	아부다비
인구	417만 명	278만 명
면적	3,885km <sup>2</sup>	67,340km <sup>2</sup> (전 국토의 85%)
특성	UAE 7개 토호국 중 두번째 규모	UAE 수도이자 대통령 및 연방 소재지

### Ⅲ 일정별 주요 연수 내용

□ 2024. 1. 5.(금) / 23:40 인천공항 출발

□ 2024. 1. 6.(토) / 10:00 두바이 국제공항 도착

① 두바이 전통 수상택시 아브라

- 아브라는 아라비아 전통 수상택시로서 두바이에서는 크릭을 건너는 대중교통수단임.
- 오래전부터 두바이 경제의 중심지였던 두바이 크릭은 바다에서 시작해 내륙의 라알코 와일드 샌추리까지 14km 길이이며, 데이라와 버두바이 지역을 동서로 갈라놓는데 이 크릭을 건너는 작은 목선의 교통수단을 “아부라”라고 부름.
- 아랍지역의 전통 수상택시인 아브라를 탑승하여 두바이의 아름다운 전통양식 건물들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수상관광을 지향하는 우리 단양에 접목하면,

- ▶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양역 나루터에서 강 건너 만천하스카이워크 입구 나루터까지 두바이 수상택시 또는 일본의 린자버스가 칼테리호수와 아시아호수를 운행하는 사례를 보면서 단양호에도 접목한다면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 일본의 린자버스 승차비는 2.800엔인데 호수에서 배의 역할을 하려고 나루터에서 대기 중인 모습(아래사진)



- ▶ 일본 린자버스 칼테리 호수인 아시아호수로 출항합니다. 단양호에도 출항할 날을 기대해 보면서 관심 가졌던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② 두바이뉴 랜드마크인 “두바이 프레임 초대형 액자 전망대”

- 기발한 아이디어와 초대형 건축물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랜드마크인 세계에서 가장 큰 액자 (가로 93m, 세로 150m)를 두바이 도심에 있는 자빌 공원에서 볼 수 있다.

- 내부에서는 3차원 홀로그램 기술로 두바이의 역사와 미래상을 볼 수 있고, 액자의 위 틀 부분에 해당하는 고공 다리에서는 두바이 시내 전체를 관망할 수 있다.
-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를 대표하는 높이 829.8m에 124층 건물을 안에서 밖을 마주 볼 수 있도록 구조물 외부를 유리 패널로 두른 뒤 금색의 아랍식 무늬로 화려하게 감쌌다.
- 2018년에 개장하여 연간 20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곳으로 공사비는 약 480억 원이 투자되었고, 입장료는 어른 15,000원, 어린이는 9천 원 정도이다.
- 액자 전망대를 입장을 위해 보이지도 않는 입구까지 30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 전망대에서 150m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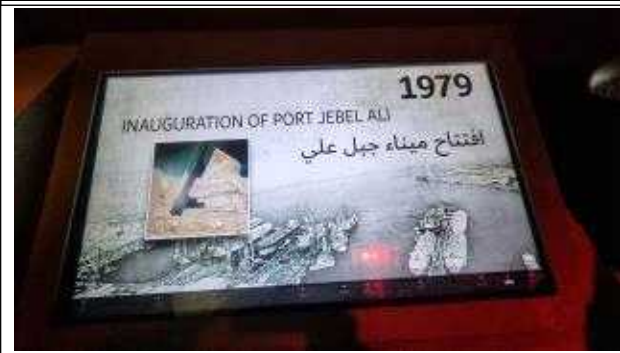




- 실내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고 먹거리도 충분하였다.



- 두바이 시내를 동서남북 모두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



- 입장을 하면 1979년의 생활 모습 등 변천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어 돈의 위력을 쉽게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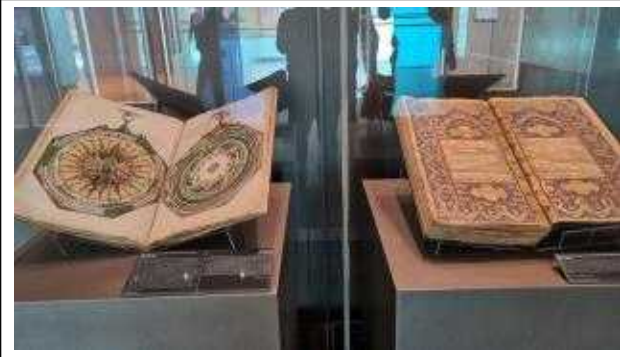


- 과거에 사용하던 기름통 등 우리와 비슷했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 ③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

- 2022년 6월에 개관한 중동 최대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전문도서관과 희귀 서적, 원고, 문서 등 전시 운영 상황을 관람 및 벤치마킹 하여 우리 군의 도서관에 무언가 접목할 수 있을 듯싶었다.
- 건물은 책의 형상으로 본떠 7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중동, 북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메나(Mena) 지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이다.
- 약 1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54,000㎡ 면적으로 9개의 전문 도서관으로 청소년, 어린이, 지도자 및 지도책, 미디어 및 예술, 비즈니스 및 정기 간행물 등이 있고, 13세기의 희귀 서적, 원고와 문서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의 보물 전시를 하고 있다.
- 2층 카페와 정원, 5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있는 원형극장이 있고, 백만 개가 넘는 인쇄물 및 디지털 서적, 6백만 개가 넘는 연구 기사, 73,000개 이상의 악보, 75,000개의 영화, 35,000개의 인쇄 및 디지털 신문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와 지식의 보고이자 전파의 중심지이다.
- ▶ 도서관과 독서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이 재미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흥미 거리가 많았다.
- ▶ 곧 개소를 앞둔 우리군 읍누림 도서관을 열람실 위주의 전통적인 도서관 모습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가 흥미를 불러일으켜 가고 싶은 도서관으로 조성함은 물론, 단양의 문화와 유구한 전통의 보고로 만들기 위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새삼 느꼈다.

□ 2024. 1. 7.(일)

- ① 두바이 수크 마디나트 주메이라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도시재생
  - 옛 모습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 전통 건축물을 활용한 갤러리 등 문화시설,



- 아래 사진 왼쪽에 승용차 같은 것도 오른쪽 사진같이 만들어  
고가로 판매





## □ 2024. 1. 8.(월)

### ①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방문

- 1976년 UAE 사무소 개설한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을 방문 시 양기모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수민 과장님, 김동민 팀장님 등 34명의 직원들이 친절한 안내와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 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도시인 팜 아일랜드를 건설하였으며, 두바이의 이러한 미래도시계획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UAE는 중동과 세계 전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재수출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역할과 비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 두바이 내 한국 업체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재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한류 드라마, k-pop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뷰티 품목 구매와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 무역관 양기모 본부장(아래 사진 오른쪽)은 충주 출신으로 많은 준비와 함께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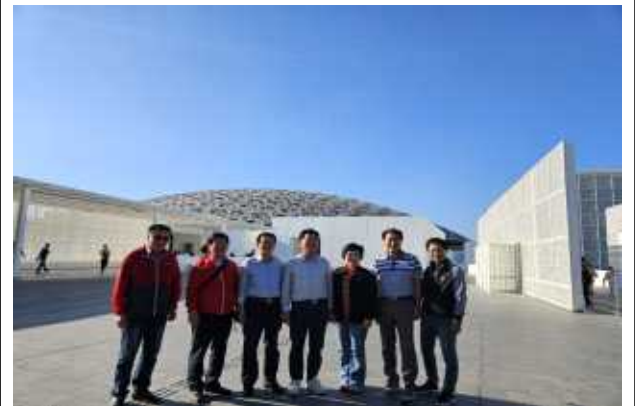




## □ 2024. 1. 9.(화)

### ①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은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의 사다야트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가 협약을 통해 10년에 걸쳐 완공된 루브르 박물관은 빛을 건축의 요소로 활용하는 장누벨은 루브르 아비다비의 지붕에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 장누벨은 중동지역의 기후적 특징에서 착안 되었는데, 사막 오아시스에 있는 야자나무 잎사귀들이 겹겹이 겹쳐 만들어 주는 그늘과 그 사이로 떨어지는 빛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내부는 마치 빛이 비처럼 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고 가이드가 설명했다.



② 아부다비 헤리티지 빌리지

- 아랍 전통 가옥을 활용한 민속촌 등 소규모 박물관을 만들어 수공예품을 포함한 기념 상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 아부다비 헤리티지 빌리지 장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





- 과거 아랍에미리트에 살고 있던 여러부족들의 고대 시장, 모스크, 캠프 등 사막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아부다비 헤리티지 빌리지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헤리티지 빌리지 작은 박물관



③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구축도시 마스다르 시티에서

-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는 바닷물을 정수시켜 모든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잔디나 꽃, 나무 등을 심으려면 물을 자동으로 줄 수 있는 물 호수를 먼저 설치한 후에야 심을 수 있는데 가는 곳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어 감탄사만 나올 뿐...





- 단양호에 주.야간 배가 다닐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기차에 의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 단양읍 시가지 복자기 나무와 비슷하게 잘 가꾸어진 가로수



## IV 두바이에서 들은 이야기가 방송에서

- 다국적도시 두바이는 아랍 자국민 8%



- 나머지 92%는 외국인이며 자국민은 무상교육



- 심지어 외국 유학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자녀 출산 시 집, 토지 지원



- 자국민은 의료, 교육, 자녀 출산 시 집, 토지 지원 등 많은 혜택으로 출산율은 계속 증가



## V 국외연수를 마치며...

- 두바이 인구 중 92%가 외국인이며, 자국민은 8%이지만 자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우리 대한민국과 다르다는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예를 들어 인건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두바이에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인건비는 본국 즉, 외국인 그 나라 수준에 맞게 인건비를 다르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인건비만 올렸다는 불만을 감안한 두바이의 인건비 책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 우리 대한민국도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건비 정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싶습니다.
- 아랍에미리트는 도서관을 건축할 때 친환경적인 미관과 구조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낮출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 어렵겠지만 우리 단양군도 산업, 교통, 교육,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방정부가 이를 실행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해 보지도 않고 우린 안된다는 생각을 고집했다면 중동지역의 사막이 지금과 같은 두바이, 아부다비로 탈바꿈했을까? 하는 생각을 절실히 해 보면서,

- 본 의원은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 단양이 글로벌 관광 일번지 단양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4박 6일 동안 상상해보았습니다. 3만여 군민과 단양을 찾는 1000만 관광객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관광 단양의 미래상입니다.
- 첫째는 바로 단양시내~도담삼봉~만천하스카이워크를 아우르는 교통수단으로 순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상진리 단양강 잔도 입구에서 단양 시가지를 경유하여 도담삼봉을 지나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하는 순환모노레일을 주차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한다면, 단양 시내 권역 어디에서나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 단양 구경시장과 도담삼봉 등에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한 후 본인이 주차해 놓은 곳에서 승하차하도록 하여 새로운 관광 볼거리 제공과 시내권역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는 미래 100년 단양의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상상은 단양 시내의 교통정체와 협소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시내 권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넉넉히 시내 외곽으로 더 넓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그리고 둘째는 수중보와 단양강을 활용한 수상택시입니다. 아브라는 아라비아 전통 수상택시로서 두바이에서는 크릭을 건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의 린자버스가 칼테리호수와 아시아호수를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단양강에서도 단양역 나루터에서 강 건너 만천하스카이워크 입구 나루터까지 또는 수중보에서 하진, 하방, 단양역, 상진, 도전까지 수상택시를 운행하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끝으로,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부다비의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의 중요함을 듣고 직접 보면서 특히, 사막이라는 지리적 환경적 악조건을 한탄하거나 굴하지 않고 긍정의 생각으로 국민의 생각을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등등을 가늠해보며, 아닌 것은 정확히 아니라고 하고, 이것이 길이라면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또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처럼 함께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각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시책 등 다양한 정보를 허심탄회하게 공유해 준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님께도 본 보고서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충북을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했던 다짐을 잊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무엇보다 한여름 50°C 넘는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을 한 포기의 식물을 직접 사진으로 담아보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채찍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3만여 군민께 맹세했던 의원 선서의 초심을 되새기고, 오직 단양발전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국외연수 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